공의 수렴 · 갈등 봉합에 역량 집중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과제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前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다만 이번 선거는 전임자의 궐위에 따른 총무원장선거로 치러져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기존 당선인들이 2주 정도의 종무 인수기간을 가진 반면 원행 스님은 바로 총무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따라서 원행 스님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느 총무원장보다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게 종단 안팎의 중론이다.

수개월 이어진 내홍 해결

조계종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면서 수개월간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설조 스님 단식, 전국선원수좌회가 동참한 승려 결의대회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세력다툼이 번졌다.

원행 스님은 이 같은 현재의 종단 상황을 의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대중공의'를 제1종책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앞서 후보 기자회견서 "사부대중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수의 지적과 제안도 크게 듣겠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소외받는 종도가 없도록 살피면서 갈등을 종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종단 및 사회 각 분야별 대중공의 체계 마련'을 종책 실천과제로 제시한 원행 스님이 흩어진 종도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구중심제 실효성 검토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교구중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행 스님 역시 △교구행정 책임제 도입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말사주지 인사권 이양 등 교구중심제 안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종책토론회서는 교구본사의 행정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무 인수기간 없이 임기 시작
산적한 현안, 종단화합 나서야
각종 선거공약 실천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먼저 세워야
대중공의로 지혜 모을지 관심

이에 원행 스님은 '본사 순환근무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순환근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종무원 급여체계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본사는 드물다.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총무원 예산에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순환근무 시 파견된 중앙종무원과 본사종무원의 임금 격차에 따른 마찰, 파견을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조합 · 노조 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원행 스님의 종단 운영 7대 기조

1.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2. 대중공의를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3.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 교구중심제 안착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5.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새 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6.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에 힘쓰겠습니다.
7. 지혜와 자비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겠습니다.

비구니 위상강화 기대

원행 스님은 비구에 비해 종헌종법상 자격 제한이 많고, 종단 요직에 진출이 어려운 비구니들을 위한 위상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 및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을 실천과제로 세웠다. 이는 오랫동안 종단 중앙행정에서 배제돼온 비구니들의 역할 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의 경우 또 다른 교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교구가 되기 위해선 교구 소속 말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비구니사찰들은 24개 교구에 각각 속해 있어, 이를 비구니교구로 이양하는 데는 본사 협조가 불가피하다. 또한 특별교구라는 명칭을 붙여 24개 교구와 교집합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구니특별교구의 필요성과 역할,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게 정리돼야만 종단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승려복지, 예산 확보 관건

원행 스님은 후보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추진 종책으로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꼽았다. 현재 내년 예정된 승려복지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3만6000원과 의료보험 2만원. 이를 약 1500명에게 지원하지만 원행 스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1만2천여 승려에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행 스님은 이 경우 1년간 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승보공양 운동 확대와 본사 지원 등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승려복지는 예산 확보가 성공열쇠인 만큼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당선 축하메세지

"나라를 나라답게, 불교도 동참을"

대한불교조계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나갈 원행 스님의 제36대 총무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일심원(歸一心願) 요익중생(饒益衆生)'이란 원행 스님의 지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중생을 위하고 노력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불교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모든 국난을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우리 민족의 고락을 같이해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과제를 원만히 헤쳐 나가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길에도 함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희망의 등불 높게 세웁시다"

원행 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전국의 조계종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단의 출범이 그간의 모든 공과(功過)를 뒤로 하고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여 상처받은 종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부처님의 제자의 화합과 대통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간의 질시와 반목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종단과 종도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과 더불어 조계종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신도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신도대중은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삼보 외호에 앞장서 신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국민 정신적 가치 향상에 역주를"

스님께서는 금산사, 안국사 주지 그리고 중앙종회의장으로 사찰 및 종단 운영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행정경험과 인화력, 리더쉽을 통해 종단이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임 총무원장께서 불미스럽게 퇴진했고, 선거과정에서도 경쟁후보들이 사실상 선거를 보이콧하는 등 그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종단이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교신도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은 더욱더 불교에 대해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불자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불교가 대중에게 더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불교의 정신적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신심 증장 계기 만들어 주시길"

불교는 신심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일반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보다는 떨어뜨렸습니다.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모두가 신심을 낼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저희 불자들은 신심(信心) · 원력(願力) · 공심(公心)의 자세로 삼보 외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시대는 인권을 비롯해 성평등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의 해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상, 차문화 등 불교와 유관한 분야의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 같은 불교의 외연 확장에 대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불교 중흥의 기치를 힘차게 들어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소통과 화합으로 새 불교를"

대한민국 불교의 장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승풍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큰 혼란과 함께 도덕적 타격을 입으며,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의혹의 여진이 남아 있는 시기에 소임을 시작하게 된 총무원장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께서 총무원장 후보시 제시한 가칭 '소통과 화합위원회'가 불교계의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통해 허울만 남아 있다고 보여 지는 사부대중이 아니라 진정한 승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낮은 자세로 원활히 소통을 한다면 상처를 입고 흩어진 종도들은 다시 모일 것이며 무너져 내린 신심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가종찰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